

## 사노피 파스퇴르(주) -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체육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국가대표선수들과 유소년 체육인 및 지도자 등 대한민국 체육인의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 부각 및 건강증진 기대

서울 - 2019년 11월 21일 - 사노피 파스퇴르(주) (대표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Baptiste de Clarens,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가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와 대한민국 체육인의 감염병 예방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11월 21일 개최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기업인 사노피 파스퇴르는 대한체육회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대한민국 체육인의 감염병 관련 인지도 및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사노피 파스퇴르는 대한체육회에 예방 접종과 관련된 주요 감염질환(독감, 수막구균성 질환, 일본뇌염, 파상풍, A형 간염 등) 및 이에 대한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소속 기관 및 체육인들에게 감염 질환에 대한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예방접종 실천을 독려한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대표는 “이번 양해각서로 대한체육회와 함께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도 감염병 예방인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노피 파스퇴르는 한국사회의 공공 보건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여러 주요 단체들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	캡션
----	----



**“사노피 파스퇴르(주) -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체육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9 년 11 월 21 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백신사업부인 사노피 파스퇴르(주)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대표와 대한체육회 신치용 선수촌장이 대한민국 체육인 감염병 예방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사노피 파스퇴르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대표, 대한체육회 신치용 선수촌장



**“감염병 예방,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앞장서겠습니다”**

2019 년 11 월 21 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백신사업부인 사노피 파스퇴르(주)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대표와 대한체육회 신치용 선수촌장이 대한민국 체육인 감염병 예방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사노피 파스퇴르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대표,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 대한체육회 신치용 선수촌장

